

케이블방송인 투니버스에서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한시간동안 '아따맘마'를 방송한다. 뚱뚱하고 성격이상한 아줌마가 주인공인 '아따맘마'는 보고 또 보아도 항상 신기하고 재미있다. 그 만화를 보고 있노라면 어떤 사람은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만화나, 그 주인공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고 말한다. 그래도 '아따맘마'는 재미있다. 이제 만화는 나이를 초월해 좋아하는 장르가 되었다. 여기 우리나라 50-60년대 만화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모으는 사람이 있다. 바로 20여 년간 전국을 다니며 초기 한국만화 자료를 모은 '만화광' 오경수(54)씨.

고만화 수집가 오경수씨

“만화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왜 만화입니까?

제가 어렸을 살던 곳은 강원도 평창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평창은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만한 것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제 형이 만화책을 좋아해서 항상 만화책을 한아름 빌려오곤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만화책을 끼고 살았죠. 만화책을 읽으면서 국어를 알게 되었고, 나름대로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손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만화책의 그림들을 곧잘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만화=나쁜 것, 저질, 공부못하는 것이라는 등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빌려오기만 하면 모두 불태우곤 하셨죠. 책상 밑에 숨겨도 보고 별별 곳에 숨겨놓았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찾아내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직장에 취직을 하고 80년대 중반쯤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식당에 들어갔는데 만화원고들을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께 물어보니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문하생 생활을 하던 시절 그랬던 만화원고를 전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지요. 이제는 내가 만화본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깐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좋아했던 그 만화를 원화라도 몇 점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만화를 수집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원화를 몇 개 수집하려고 했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그 만화책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50~60년대 만화는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도 너무나 오래된 작품들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만화는 사서 보는 게 아니고 빌려서 보는 거라 더욱 수집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만화는 허구한 날 불태워졌기 때문에 인쇄본 하나를 찾는 것이 거의 원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만화책을 찾아 인사동이나 청계천 헌책방들을 뒤졌지만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지방도 여러 곳을 다녔지만 한 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작품을 그린 만화가들과 문하생들을 찾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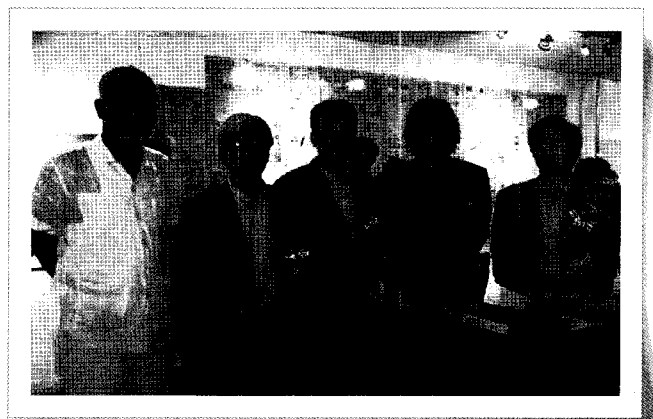
문하생이었던 분들의 경우 자기 작품은 자리비좁다고 버려도 스승님 책들은 모두 책상에 꽂아 놓거든요. 그것들을 사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두 안 팔겠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50년대의 만화책은 그 당시 20원~30원정도 했습니다. 그것을 5만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에 사는 거죠. 그래서 현재 2000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고, 그중 아끼는 작품이 300권 정도 됩니다.

50~60년대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했다면서요.

50년대 우리만화는 5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봐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평소 친분이 있는 만화수집가 이태근 씨와 함께 초창기 만화 150여점과 포스터 30여점을 전시했습니다. 150여점의 만화책 중 제가 수집한 작품이 100점 가량 됩니다.

전시회에는 한국 만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박기당(1922-1979) 화백과 김종래(1927-2001) 화

오경수씨가 모은 고만화들과
인사동에서 열렸던 고만화전시회때 모습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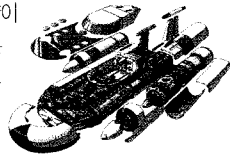
국내 최초 SF만화, 라이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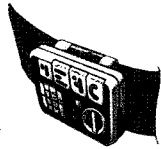
1959년 시작된 라이파이 시리즈는 총 4부, 32권으로 출판되었다. 1962년까지 연재된 작품이지만 지금은 원본조차 소실되어 지금 남은 건 10권이 채 안된다. '리'자를 새겨 넣은 두건을 쓰고 악당을 물리치는 라이파이는 59년에는 상상조차 어려운 아득한 미래사회인 22세기를 배경으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제비기를 타고, 하늘과 땅을 종횡무진 누비며, 화려한 격투기와 박력 넘치는 액션을 펼쳐 보였다. 당시 만화가 주로 가난과 폐허를 딛고 굳건히 일어서는 주인공들의 슬프고 감성적인 내용이 주류였다면 라이파이는 강력한 힘과 용기로 악의 무리에 맞서, 움츠려 들어있던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만화 라이파이는 중남미 안데스산맥을 근거지로 인카의 후에 녹의 여왕, 지구대항제를 꿈꾸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제트(Z)단에 맞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라이파이의 영웅담이다.

라이파이의 SF 매커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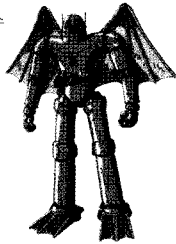
제비기_ 라이파이의 파트너 제비양이 조정하는 제비기는 방탄기능은 물론이고 빛보다 빠른 초광파의 속도로 우주와 비탄속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미래의 전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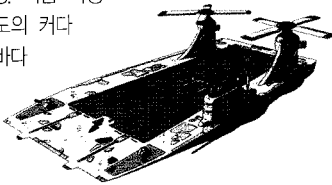
연락기_ 라이파이가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으로 제비기에 수신을 보내 연락하는 장치이다. 김탐정도 라이파이에게 구조신호를 하기 위해 차고 다니고 요새와도 연결이 된다.



강철로봇_ 탱카니카 호수 깊은 곳의 수증기지를 근거지로 하기 때문에 발에 물갈퀴가 있고 등에는 날개가 있어 공중과 수중에서 자유롭게 공격을 할 수 있다. 그것테의 부하인 프랑고대령이 조종을 한다.



부배항공선_ 인카군의 사각형 디자인이 독특한 대형비행정. 작음 비행정이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부배항공선은 마치 바다의 요새인 항공모함을 닮았다. 특이하게 프로펠러가 위쪽에 장착되어 있다.



태양반사경 비행정_ 붉은제국 세계인민해방군의 강력한 살상무기인 태양반사경을 탑재한 비행정으로 십자군과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태양반사경은 빛을 응집시켜 발사하는 기구로서 그 화력이 사람과 기체를 녹여버릴 정도로 막강하다. 손거울처럼 휴대가 간편한 개인용 태양반사경도 있다.



백의 걸작을 비롯해 '라이파이(산호)', '도전자(박기정)', '약동이와 영팔이(방영진)' 등이 전시됐습니다.

이중 '엄마찾아 삼만리'는 김종래 선생의 대표작으로 1958년 8월 출간했습니다. 내용은 아버지가 놀음에 빠져 아내를 부잣집에 팔게 되고 이에 아들이 문전걸식을 하면서 엄마를 찾아다니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이 만화의 내용이 전쟁이 끝나고 어수선한 사회상황과 맞아 장안에 히트했습니다.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엄마찾아 삼만리'는 5번이나 재판받은 작품입니다. 그림은 붓글씨로 그렸는데, 운보 김기창선생 못지 않은 완성도가 높은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아끼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제 회사 이름이 라이파이 프로덕션이니깐 라이파이를 아끼는 마음은 상상이상일 겁니다. 라이파이는 6.25전쟁이 끝나고 아주 어려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슈퍼맨이 인기를 끌고, 해방이후 미국문화가 들어오면서 만화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국만화들은 과학 액션물이 많은데,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 때 우리에게도 망토를 휘날리며 악당을 물리치는 라이파이가 등장한 거죠.

라이파이가 나오는 날에는 전국의 만화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지말안하고 그 당시 100만 명이 봤습니다. 한번 라이파이를 빌려보면 아들도 보고, 대학생 형도 보고, 아버지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라이파이를 봤습니다. 만화 가게에서는 라이파이 신간이 나오는 날이면 한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두 권을 사고, 그것도 모자라 만화 한권을 두 쪽으로 나누어 빨리빨리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산호 선생의 라이파이는 1959년부터 1962년까지 4년 동안 32권을 발행하면서 전국을 라이파이 열풍으로 몰아넣었지요. 라이파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모험심을 주어 전후의 세대들에게 희망을 넣어주었으며, 어떤 아이에게는 만화가가, 어떤 아이에게는 과학자가, 어떤 아이에게는 비행사인 파일럿이 되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도 많이 드셨죠. 악당에 별모양이 있으니깐 중앙정보국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거 아니냐며 끌려다니고, 육도 먹고, 힘이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60년대 후반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영어로 500여 권의 만화를 그리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라이프라이를 좋아하십니까?

현재 박재동 씨는 라이프라이동우회 회장으로 있으며, 제 사무실인 만화와 추억이 라이프라이동우회 서울지부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이프라이동우회는 우선 산호선생님의 수제자인 김태익(애니메이션 감독)씨를 중심으로 김동화, 백성민, 김형배, 이희재 씨 등 유명 만화가들이 모였습니다.

라디오 MC인 강석씨도 만화에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개그맨이 되기 전에 박형, 김영충, 이소풍 선생님 밑에서 만화공부를 했었습니다. 가수 최백호 씨는 학창시절 미술부 활동을 했고 지난번 음악 재킷에는 직접 그린 라이프라이 그림을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강석씨, 최백호씨 뿐만 아니라 전유성씨(개그맨), 양희은씨(가수) 등도 전 시장에 찾아와 라이프라이회원이 되었습니다. 연예인들 뿐 아니라 백홍렬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장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라이프라이를 보고 우주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만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만화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가장 심도 깊게 표현하는 문학과 회화를 망라한 종합예술로서 또 그 시대의 사회를 잘 반영하는 한 시대의 거울입니다. 게다가 수백 수천의 독자에 의해 철저히 검증된 작품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만화는 참담했습니다. 정말 대접을 못 받았죠. 만화는 허황된 것이라 학생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화만 갖고 다니면 나쁜 아이 취급을 받았죠. 이런 몇몇 사람들의 경직된 생각들로 인해 어린이날은 만화책 태우기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만화책이 거의 없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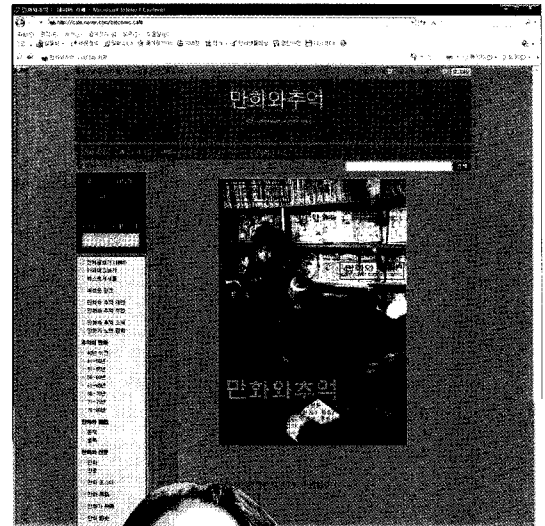
인터넷모임인 만화와 추억(cafe.naver.com/oldcomic.cafe)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광수, 김동인, 이효석, 김소월, 윤동주들은 모르면 큰일날것처럼 외우고 다니면서도 정작 김용환, 박광현, 박기당, 김종래, 산호, 방영진, 신동우, 김정언, 박기정, 임창, 유세종은 모릅니다.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는 소리 높여 외우고 다녀도 라이프라이, 약동이와 영팔이, 엄마찾아삼만리, 칠성이, 도전자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고전만화 팬과 만화가 등이 모인 인터넷 만화모임 '만화와 추억'은 자료 공유 및 사료정리와 함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해보자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는 6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만화100주년 전시회 전시기획을 맡으셨다는데.

우리만화 100주년은 1909년 6월 2일 독립운동가 오세창 선생이 창간한 대한민보에 이도영씨가 시사만화를 게재한 것을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2일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두 달간 한국만화 100주년 전시회를 갖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박재동 선생과 함께 전시기획을 맡았습니다. 전시회에서 중심을 두는 것은 자랑스럽고 훌륭한 우리 만화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일부 왜곡된 우리 만화역사를 확실한 자료와 고증으로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시작품이나 작가 소개에 편향된 시각이 없이 공정한 작품선정을 위해 전문 관계자들의 검증도 감수를 통해 최고 작품만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의 도록을 기반으로 우리 만화유산의 목록이 작성되고, 선정된 작품들은 잘 보존되었으면 합니다.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네이버카페인 '만화와추억'

